

鄭茶山の 牧民心書 이야기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중반이후 당쟁과 사회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암행어사로 나가 탐관오리(貪官汚吏)로 인해 농민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젊어서 서양문물을 득문하면서 19세기초 조선사회가 요구하는 실학사상(實學思想)을 집대성하게 된다. 16세기 이후 광의 지방유실에 의해 천주교가 소개되고 다산의 매형 이승훈이 교회를 세우면서 남인 소장파 권철신(權哲身) 일신(日身) 형제와 다산의 3형제는 신유사옥(辛酉事獄)을 당하여 옥사 또는 참수를 당하고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간 지내면서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기록한 것이 목민심서이니 그는 경국제민(經國濟民)과 치국안민(治國安民) 실현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그는 군자가 배워야 할 것은 수신(修身)이 반이요 반은 목민(牧民)이라 하며 사목하는 자들은 오로지 제 이익 체우는데 급급하고 백성을 기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목민심서는 12개편으로 각편에 6조씩 고을 수령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다루었는데 그중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3편 중 일부를 공복(公僕)과 일반이 수양함에 도움이 될 내용을 소개한다.

1. 율기(律己)
 『公事有暇 必凝神靜慮 思量安民之策 至誠求善』
 공사에 여가가 있거든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을 가라앉혀 백성을 편히 해줄 대책을 생각하고 헤아리며 정성을 다해 최선책을 구해야 한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오재공은 날마다 사물을 응접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한때의 시간을 얻어 편안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정신을 함양하고 가다듬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일이 번잡할수록 마음을 더욱 한가하게 하여 오히려 일은 부족하고 나는 여유가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백자(程伯子)가 현령이 되었을 때 그는 좌우명으로 視民如傷(백성을 보살피기를 다친 사람 보살피듯 함)이라 써

놓고 '나는 날마다 이 문구를 대함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였다. 치현결(治縣訣)에 이르기를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 할 의(畏)자 하나에 있는 것이니 상관을 두려워 할 것이며, 소민(小民)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 마음에 항상 두려움을 간직하면 흑시라도 방자한 일은 없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허물은 적게 해줄 것이다.
 『毋多言 毋暴怒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말라』
 백성의 옷사람된 자의 한마디 말이나 일거수 일투족은 모두가 아랫사람들이 듣고 살피게 마련이니 방에서 문으로 보면 백반 단련된 쇠붙이 같아서 기지가 지혜로와져 엿보고 살피는 것이 귀신같이 든다. 그래서 관청문을 살짝 벗어나기만 해도 세세한 것까지 모두 누설한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군자가 집안에서 하는 말이 선하면 천리 밖에서도 이를 따르는데 쇠붙이 같아 있는 자들이야.' 라고 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뜻밖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경계하여 말을 삼가서 하라.' 하였으니 백성의 옷사람 된 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포중(包拯)이 경윤(京尹)이 되었는데 말과 웃음이 적으니 사람들은 그의 웃음을 천년이나 한번씩 봐야 한다고 하는 황화에 비유했다.
 여본중(呂本中)이 동몽훈(童蒙訓)에 이르기를 '벼슬에 임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격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격하게 분노한 마음으로 형벌을 내리면 온당치 못한 처사가 되기 십상이다.' 라고 하였다.
 대체로 심한 분노는 병이 되므로 평소 세 글자를 좌우명으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성이 나거든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말고 억제하고 마음에 가두어 두라는 뜻인데 시간이 흐른 후

에 분노가 가라앉으면 마음을 가다듬어 일을 처리하면 큰 과오는 저지르지 않게 된다.
2. 청심(淸心)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백리(淸白吏)로 뽑힌 사람은 통틀어 110명인데, 태조(太祖)이후로 45명, 중종(中宗) 이후로 37명, 인조(仁祖) 이후로 28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경종(景宗) 이후로는 마침내 이렇게 뽑는 것조차도 끊어져,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한심스럽지 아니한가. 4백여 년 동안의 관(官)을 갖추고 조정에 나선 사람만 해도 몇 천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청백리로 뽑힌 자가 겨우 110명이라는, 이는 사대부의 수치(수치)가 아닌가.
 『성삼독』에 이르기를,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설령 먹고 남음이 있어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만을 타고 숙연히 가는 것이니, 이것이 최상 옛날의 열리(廉吏)이며, 이것이 최상 등급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는 것을 집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중고(中古) 시대의 열리였다. 가장 아래로는, 무릇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록 그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그 규정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자기 먼저 죄의 전례를 만들지 않으며, 향(鄕)이나 임(任)의 자리를 돈 받고 팔지 않으며, 재해를 입은 수확량에 대해 감면해 주는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소위 청백리이다.'
 <편>
 (다음에 계속)

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관광 명소

웅진 북도면의 섬들

함춘 권 오 창



우리 나라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하늘의 관문 영종도와 지호지간인 웅진군 북도면의 4개 섬인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는 바다위에 떠 있는 자연 그대로의 환상적인 관광의 명소는 잘 모르고 있다. 장봉도를 제외한 3개 섬은 연도교가 놓이면서 30km의 해변을 이어주고 수목이 울창한 야산을 가로 지르고 섬 둘레 길이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들이다.
 이들 섬을 둘러 볼때에는 영종도 삼목선착장을 이용하여 배로 건너는 것이 가장 좋다.
 삼목 선착장은 서울역 출발 인천공항도착 공항철도를 타고 운서역에서 내려 역광장 맞은편에 삼목 방향으로 가는 시내 버스가 매시에 있고 삼목 정류장까지는 불과 10여분 밖에 걸리지 아니하며 삼목 선착장까지는 걸어서 3분이고 그곳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 페리호는 매시 10분에 출항 한다.
 섬에서 나오는 배는 매시 30분에 신도 선착장에서 있다. 왕복승선 요금은 대인 기준 3천6백원인데 들어 갈 때에는 받지 아니하고 나올 때 받는다. 국가 유공자는 요금이 할인 되나 경로는 합인이 안된다.
 섬에 들어가서는 대중 교통인 버스가 순환운행되고 영암읍 택시가 있다. 자가용은 더욱 편리하다.
 여객 페리호는 화물 트럭 승용차 차량 등을 소정의 요금으로 함께 탑재할 수 있다.
 삼목 선착장에서 신도까지는 도선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여객실에 는 소파와 개인용 철제 의자가 있고 음악과 TV를 시청할 수 있으며 노인들을 위하여 1층에 병난방이 설치된 별도의 방을 운영하고 있다.
 배 떠나는 고동소리에 어디서 날아오는 지 바다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날란다. 사람들이 새우깡을 공중으로 뿌리면 옹하게도 날아온다. 갈매기 먹이는 배 매점에서 팔고 있다.
 배 갑판 위에서 인천 공항에 수도 없이

이차륙 하는 웅진하고 미끈한 유선형의 여객기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영종도 앞 바다에는 크고 작은 어선 화물선이 떠 있고 밀물 썰물은 섬의 속살을 들어왔다가 겹겹이다가 한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공포심마저 느끼게 한다.
 배의 첫 기착지는 신도인데 시도, 모도는 연도교로 연결된다. 이들 섬을 3형제 섬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 한다. 이들 섬의 연도교 길이는 579m이고 고풍스러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가로등은 밤에 깨끗하게 출렁이는 밤바다와 적막한 섬 마을을 비추고 있다. 한가지 더욱 편리해진 것은 시도, 모도간의 원래 하루에 두 번만 바다에서 나타나는 잠수 연도교였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연도교가 건설 되었고 여기서 망동어, 우럭 등을 낚는 태풍들의 명소가 되었다.
 신도에는 해발 178m 구룡산이 솟아있다. 정상까지 잘 닦인 비포장 도로이고 승용차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고 트레킹 등산로는 1-2시간 소요로 여러 코스가 있으며 험터와 약수터가 있는데 특히 산 서쪽에 구룡산 성지 약수터가 유명하다.
 오르는 산 길에는 밧나무를 식목하여 만개되는 봄철의 관광과 소나무 잡목으로 어우러진 숲의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시도에는 면사무소,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보건지소, 초등학교, 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염전, 수기해수욕장과 드라마MBC 슬픈연가 세트장, 드라마 KBS 플라워스 세트장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기념촬영 장소로 이름 나 있다.
 (다음에 계속)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 ▲ 권태일(고문) 100만원
 - ▲ 권경섭(부총재) 100만원
 - ▲ 권태석(부총재) 100만원
 - 소계 300만원
- 중무위원회
 - ▲ 권순덕(영주) 20만원
 - ▲ 권영갑(수원) 20만원
 - ▲ 권기범(대구) 20만원
 - ▲ 권영민(서울) 일부 10만원
 - 소계 70만원
- 대외위원회
 - ▲ 권영학(예천) 10만원
 - ▲ 권형채(평택) 10만원
 - ▲ 권오갑(안동) 10만원
 - ▲ 권우수(금천) 10만원
 - ▲ 권오수(안동) 10만원
 - ▲ 권두현(수원) 10만원
 - ▲ 권태춘(의정부) 10만원
 - ▲ 권오주(안동) 10만원
 - ▲ 권병근(합천) 10만원
 - ▲ 권영호(안동) 10만원
 - ▲ 권() (대전) 10만원
 - 송금인 연락바랍니다
 - ▲ 권창(시흥) 10만원
 - ▲ 권오정(예천) 10만원
 - 소계 130만원

합계 500만원



약삭빠른 사예교위를 벌준 석호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서기 4세기 중국에는 남쪽에 동진(東晉)이 있었고, 북쪽에는 전조가 망하고 후조가 강성해지고 있었다. 그 외에 서북쪽으로 성(成)과 전량(前凉)이 있어서 서로 각축하며 긴장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원지역에서는 먼저 일어났던 전조(前趙)가 망하고 다시 석씨(石氏)에 의하여 일어난 후조(後趙)가 중원지역의 강자로 나타났다.
 비록 북쪽에 성(成)이라는 나라와 전량이 있었지만 중원지역에서 보면 서북쪽 귀토에 있을 뿐 큰 세력은 아니었다.
 후조로서는 다만 남쪽에 비록 중원에서 쫓겨 내려가기는 했지만 동진(東晉)과 맞서야 하는 입장이었다.
 새로 왕조를 건설한 후조는 어떻게 하든지 국력을 튼튼히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한군데로 모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중원지역의 중심부라고 할 기주(冀州, 하북성의 중남부)에서 황충이 먼저 나왔다.
 황충이 물러들어 푸른 잎은 다 갈라 먹어서 농사는 다 버리게 되었다.
 이 무서운 황충의 재해가 기주에 속한 여덟 군으로 퍼져 나갔다. 견잡을 수 없는 황충의 피해가 이렇게 널리 퍼졌으니, 후조로서는 큰일을 만난 것이다. 인심은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다. 경사(京師)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는 사예(司隸)교위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 방법을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황충이 번진 것은 태수들이 미리 이를 막지 못한데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책임을 묻자. 그러면 조정에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되고, 황충에게 농작물을 다 잃고 난 농민들도 마음속으로나마 후련할 것이니, 큰 치안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드디어 사예교위는 후조의 왕 석호(石虎)에게 건의하였다. '황충이 곡성을 부린 것은 각 군의 태수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 건의는 조왕 석호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조왕 석호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건의였다.
 석호는 지금 후조를 세워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원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후조를 세운 석류의 조카였고, 어려서 성격은 포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그가 17세 때에 그를 죽이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당시 후조의 왕인 석류의 어머니가 반대하였다. "빠른 소는 송아지였을 때 대부분 수레를 부수어버리는 법이니, 너는 조금만 참아보아라."정말로 석호는 자라면서 연전연승의 장수가 되었고, 끝내 석류의 뒤를 이어서 조왕이 되었다.
 이러한 석호는 알파한 사예교위의 정책에 찬성할 수 없었다.
 알파한 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처사는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그러던 오히려

더 큰 잘 못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정면으로 맞서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사예교위의 알파한 건의를 받은 석호는 '만약에 황충으로 벌어진 재앙이 정치적인 잘 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최고 책임자인 왕에게 있는 것이지 지방관인 태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는 모든 정치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고대 정치적 이상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어려서 말쑥꾸러기였던 석호가 이상적인 정치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였다.
 "사제가 정직한 언문을 울리지 아니하여 짐에게 허물을 이르지 않도록 보좌하려 하다가 죄 없는 사람들을 망령되게 모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를 백의(白衣)로 직책을 관장하도록 하라." 관직을 가진 관리가 잘 못을 저질러서 관복을 입지 못하고 근무하게 하는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 그에게 알파한 정략은 통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약삭빠른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 보고 벌을 줄 수 있는 높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일이 잘 못 되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서 밀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 같다. 무식해도 좋으니, 석호 같은 사람이 기다려지는 시대다.

기행문

先進 西部유럽 探訪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지나호에 이어)
 내부에 들어가 보니 우중충하고 어두우며 각종 그림들이 탈색된 상태였다. 대리석 바닥은 침수로 인하여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리석 모자이크는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상당 밖을 나와서 비둘기모이를 주면서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광장 뒤에 있는 무라노 유리공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15-20년 동안 일한 숙련공이 1,200나 되는 용광로에서 유리를 달구어 수작업으로 기마상을 만들어 보였다. 손으로 진흙을 다루듯이 잠시 동안 유리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재주에 놀라움을 잃고 말았다.
 전시실에는 각종 유리제품의 진귀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꽃병 한 개도 수십 만원을 호가하는 것이 있어 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10) 미로를 누비는 곤돌라 탑승
 유리공장에서 나와 곤돌라 탑승구까지 걸어서 15 : 30부터 6명이 1조로 40여분간 곤돌라를 탔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미로를 오고가는 곤돌라들이 벽에나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하는 사공들의 운전 솜씨에 놀랐다.
 수로에 접하여 있는 건물들은 거의 5-6층의 건물로 1층은 침수되는 일이 있어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수로의 물결이 5-10m나 된다고 하였다. 곤돌라를 타고 미로를 벗어나 좁 넓은 곳에 나오니 수상택시, 수상버스, 모터보트 등 크고 작은 배들이 분주하게 오고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곤돌라에서 내려 시간이 있어 1시간의 자유 시간을 가졌다. 날씨가 약간 쌀쌀하고 피로하여 몇 사람만 기념품상점을 돌

아볼 뿐 거의 모두가 군데군데 둘러앉아 쉬고 있었다. 산 마르코 광장에서 조금 걸여 나온 중 국인이 경영하는 장성찬관(長城餐館)에서 중국음식으로 저녁밥을 먹었다.
 유람선을 타고 베니치아 육지로 나와서 물가에 있는 깨끗한 현대식 건물인 Laguna Suites Hotel에 투숙하였다.
11) 르네상스를 꽃피운 도시 피렌체
 3월 7일(금) 호텔에서 아침밥을 먹고 피렌체로 향하였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오면서 마약(양귀비), 도박, 무기판매 등으로 이탈리아 지하경제의 30%를 장악한다는 지하조직인 '마피아' 이야기도 들었다.
 조용하고 은은한 느낌이 드는 '내 사랑' '산타루치아' 등의 민요를 들으며 몇 시간을 달려도 산이 보이지 않았다. 르네치아 평야지대를 지나갈 때 길이 약간 정체되기도 하였다. Bologna에서 우회전하여 Autogenn에서 잠시 쉬었다.
 용변만 보고 다시 출발을 하니 들리는 없고 아산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마페니 오산맥을 넘어 피렌체까지 오는 동안 세 여보나 23개의 터널과 18개의 다리를 지나왔다.
 베니치아 출발한지 4시간이 되어 피렌체에 도착을 하여 패션센터에 먼저 둘러 소풍을 하였다. 가죽제품, 바버리, 스키프, 카메라, 허리띠, 지갑, 재킷, 신발, 등을 구입을 하였다.
 기념품상점에서 나와 우물이라는 뜻의 '뽀' 라는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었다. 식당에서 만난 관광객 중 서울에 산다는

바로잡음

본지(2012. 1. 1 제 439호) 1면 '신년사'란에 陰德을 蔭德으로, 행주대첩제의 날 4월 14일을 3월 14일로, 同 '신춘회호'란에 陰響鄉校敎學講를 陰城鄉校敎化學講로 樞密公波를 樞密公派로 7면 '성원에 감사합니다'란에 중무위원 회비입금에 권경섭(의성)을 (안동)으로 각 바로 잡습니다.

중년부인 남순애씨가 친정이 일지이라며 우리를 보고 반기며 어찌할 줄 몰라 했다. 고향이 일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와인 한 병을 사주며 나누어 마시라는 인정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고맙다며 껍듯이 인사를 하였다. (다음에 계속)